

후적 특성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과 적응성 검정이 필요하다.

- 국내 사과의 숙기별 주요 품종은 조생종은 ‘쓰가루’, 중생종은 ‘홍로’, 만생종은 ‘후지’이며 이들 세 품종은 재배면적의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MAF, 2007) ‘홍로’와 ‘후지’ 품종의 재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KERI, 2011). 이러한 일부 품종의 편중재배로 인한 출하시기 중복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후지’와 ‘홍로’의 편중재배는 강원도도 같은 경향으로 현재 강원도에서의 사과 재배 품종은 후지가 388ha로 59%를 차지하고 있고 홍로가 189ha로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육성 사과 신품종의 재배면적은 홍로를 제외하고 13.3ha로 1.8%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강원도 고랭지의 경우 만생종 품종의 재배시 미숙과 상태로 수확을 하거나 동해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중생종 품종의 적응성 검정과 각 품종의 재배 매뉴얼 작성 및 보급이 필요하다.
- 2004년 이후 국내에서 사과 품종별 차별화 및 다양화를 위해서 과피가 녹색인 ‘그린볼’(권 등, 2009b)이나 ‘황옥’이 육성되었고 국내 사과 소비자의 패턴 변화에 따라 중·소형과인 ‘피크닉’도 육성(권 등, 2009a) 되었으나, 해당 품종의 충북지역에서의 기후변화와 재배 환경과 함께 수채 생육 및 과실 특성 등을 검토해야 함(임 등, 1990; Jang 등, 2002).

제3절 연구 개발 범위

- 국내 육성 사과 신품종의 사과 주산지역별 성과기 생육 및 과실 특성 평가하고 성과기 재배 매뉴얼 개발을 하고자 함에 있다.
- 국내 육성 사과 신품종의 사과 주산지역별 성과기 생육 및 과실 특성 평가 후 재배 매뉴얼 개발